

# 모던의 이미지 ‘유선형’ 근대 시각문화의 표상

박은영

## I. 머리말

朴銀英

홍익대학교  
미술평생교육원 강사  
홍익대학교 문학박사  
근현대미술사

‘유선형(streamline)’은 유체의 흐름과 같은 곡선형을 뜻하며, 움직이는 사물에 가해지는 물이나 공기의 저항을 줄여 속도를 높이는 미끈하고 가름한 형태를 가리킨다. 본래 독일에서 시작된 과학 용어였지만 점차 미국과 유럽에서 속도감을 표현하는 형태에 적용되었고, 나아가 속도 자체의 기호(sign)로, 또는 속도와 상관없이 특정 이미지 유형을 가리키는 기호로 변화했다. 기술 연구 및 산업 생산에서 시작된 유선형은 자본주의의 성장에 따라 대중의 일상으로 파고들며 향상된 미래를 위한 ‘꿈의 스타일’로 발전했다. 1930년대에는 유선형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시대의 양식이자 문화적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

1930년대에 한국은 식민 통치하에서도 급속히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통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가운데 변화를 따라가려는 욕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6979).

\*\* 필자의 최근 논저: 「시각문화의 관점에서 본 근대 도시 경성의 간판」, 『미술사논단』51, 2020. 12; 「시각문화의 관점에서 본 한국 근대 산업유산: 철도역 급수탑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48, 2019. 6.

다. 이 시기에 서양과 일본에서 유입된 유선형은 간결하고 기능적인 최선의 형태로서 미래의 변화나 진보를 가리키는 혁신적 이미지로 여겨졌다. 유선형은 단지 특정 유형이 아니라 ‘신식’이라 불리는 모던한 모든 것에 적용되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 유선형이 유행한 시기에 한국(조선)에서도 유선형 붐이 일어난 현상은 그만큼 유선형 문화의 확산 속도가 빨랐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빠른 전파는 균일화·대량화·국제화와 같은 근대성의 일면을 나타낸다. 1930년대 조선의 유선형 열풍은 해외의 발전한 기술을 빨리 흡수하고 세계적인 문화적 추세를 따르며 신속히 근대화 대열에 합류하려는 강한 열망을 반영한다. 유선형을 추종하면서 대중의 일상생활과 미의식도 서구적으로 변화해 갔다.

본 논문에서는 ‘유선형 시대’라 불리는 1930년대 유선형의 지역별 특징을 파악하고, 일제강점기 조선의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유선형 관련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유선형’이 표상하는 당대의 시각적·심미적 관점을 추적하고자 한다.

## II. 근대적 유선형의 등장

### 1. 유선형의 기원과 전개

유선형의 기원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자연에서 물고기나 새의 유기적 형태의 효율성을 인식하고 인공물에 적용했다. 19세기에는 주로 물의 저항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선체를 유선형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1897년 독일의 페르디난트 폰 체펠린(Ferdinand von Zeppelin) 백작은 유선형을 비행선에 적용해 ‘체펠린’ 비행선을 발명했다. 물고기처럼 앞부분이 뾰족하고 선체가 길고 매끄러우며 꼬리날개가 달린 이 경식비행선은 승객 수송 및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며 큰 성공을 거뒀다.

1900년경까지는 가장 저항이 적은 형태를 ‘유선형’이 아니라 ‘물방울 모양’ 또는 ‘눈물방울 모양(teardrop shape)’이라고 칭했다. ‘유선형(streamlined)’이라는 용어가 대중 과학잡지에 처음 사용된 것은 1911년경으로 여겨진다.<sup>1</sup> 이때 유선

---

1 과학잡지 *Popular Mechanics*에 실린 기사 「자동차에 ‘유선형’ 보디」; 原克, 『流線形シンドロム』(東京: 紀伊国屋書店, 2008), p.17에서 재인용.

형은 ‘공기저항을 줄이는 구조’를 뜻하는 과학 학술용어였다. 다시 말해 유선형이란 본래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저항을 최소화하여 최대 속도를 얻기 위해 고안된 형태를 의미했다. 이제 유선형이 선박뿐 아니라 비행기,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14년 이탈리아의 카스타냐사에서 제작한 알파 로메오(Alfa Romeo) ‘에로디나미카(Aerodinamica: 공기역학)’ 자동차는 최초의 물방울 모양 차체로 여겨진다. 또 1921년 베를린 모터쇼에 출품한 에드문트 뤼플러(Edmund Rumpler)의 ‘트롭펜바겐(Tropfenwagen: 물방울 자동차)’은 공기역학을 적용한 최초의 유선형 양산차로 알려져 있다.<sup>2</sup>

1920년대 들어 자동차의 속도에 있어서 유선형의 우수성이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되면서 유선형이 운송기기 디자인에 폭넓게 적용됐다. 특히 비행기는 1920년대 후반 구조 개선으로 더욱 단순한 형태를 띠게 됐다. 1927년 찰스 린드버그(Charles Lindbergh)의 대서양 횡단 단독 비행이 성공하자 영웅적인 공중 모험담과 함께 비행기는 우월한 속도로 철도와 선박을 위협했다.<sup>3</sup> 미국 산업디자이너 노먼 벨 게데스(Norman Bel Geddes)는 1927년 유선형 자동차 모형을 제작한 다음, 1929년에는 대서양 횡단 정기선으로 수륙양용 ‘에어라이너 No.4(Airliner Number 4)’를 제안했다. 이 여객기는 유선형 선체와 수평의 비행기를 결합한 형태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했다. 게데스의 디자인은 실제로 제작되지는 못했지만, 야심찬 기획으로서 이후 산업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운송기기와 제품의 상업성을 높이는 데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자 1920년대 후반부터 산업디자이너라는 전문직업이 확립되었다. 그들의 디자인에서 유선형은 중점적으로 고려할 요소로 떠올랐다. 1920년대에 유선형은 과학을 넘어 디자인과 함께 형태의 개념을 띠게 되었다. 즉 ‘유선형’이 학술용어를 벗어나 이미지 언어로 독립해 새로운 기호성을 획득하기 시작했다.<sup>4</sup> 유선형 디자인이 속도 자체의 기호가 되었고,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희망적 기호가 된 것이다.<sup>5</sup>

2 김태환, 「자동차에 나타난 유선형 기계미 연구: 질베르 시몽동의 ‘세계 내 삽입’ 개념을 중심으로」(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p.58-59.

3 Donald J. Bush, *The Streamed Decade* (New York: George Braziller, 1975), pp.26-27.

4 原克, 앞의 책(2008), p.22.

5 위의 책, pp.30-34 참조.

## 2. '유선형 시대', 1930년대의 유선형

1930년대는 '유선형 시대'라고 불릴 만큼 유선형의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이어지고, 운송수단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으로 유선형이 확산했다. '유선형'은 미학적 용어로 자리 잡으며 시대의 문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 1) 미국의 유선형

게데스는 1932년 저서 『지평선 Horizons』에서 운송기기가 유선형이어야 하는 이유를 미학적·기술적으로 제시하고, 유선형의 발달을 연대기적 그림으로 도해함으로써 1930년대 유선형 미학을 주도했다.<sup>6</sup> 대공황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게데스는 1930년대를 특별한 것이 있는 새로운 시대라고 여기며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 유토피아적 비전을 제시했다. 그가 보기에 미래의 형태는 유선형인데, 기능적 이유뿐만 아니라 더 현대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었다. 유선형은 오래된 것을 새롭게, 새로운 것은 더 새롭게 하고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보이게 했으며, 기술적·기계적인 것보다 외부의 형태에 역점을 둬으로써 기술을 낭만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유선형은 기술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는 치유 기능을 지닌 것이었다. 또한 1930년대 미국에서 유선형은 민주적인 성격을 띠었는데, 대중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가정용품에 적용해 부유한 사람이나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sup>7</sup>

미국에서는 무엇보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선형 이미지를 정책적으로 채택했다.<sup>8</sup> 우선 기차와 자동차에서 기술 개량과 함께 역사적인 유선형 모델들이 속속 탄생했다. 불황으로 치명적인 손실을 본 철도회사들은 그 타개책으로 신기술에 의한 경량, 고속의 유선형 열차 개발에 집중했다. 1934년 유니언 퍼시픽 철도에서 운행 개시한 '스트림라이너(The Streamliner)'는 기차에서 '유선형'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미국 최초의 유선형 열차였다. 같은 해 시카고의 벌링턴 & 퀸시 철도회사에서는 최초의 디젤 철도차량 '제퍼(Zephyr)'를 개발했는데 이것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은

6 Jeffrey L. Meikle, *Twentieth Century Limited Industrial Design in America 1925-1939* (New York: Harry N. Abrams, 1990), p.48.

7 James Longford, *Norman Bel Geddes: From Horizons to the Futurama* (London: Southgate Books, 2019), pp.6-7.

8 채승진, 「신고전주의와 유선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논문집』2:1 (1995), pp.145-147 참조.



색의 유선형 열차였다.

1936년에는 산업디자이너 헨리 드레이퍼스(Henry Dreyfuss)가 내부와 외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유선형의 ‘머큐리(Mercury)’ 열차를 디자인했다. 또 미국 산업디자이너의 아버지라 불리는 레이먼드 로위(Raymond Loewy)는 1936년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를 위해 기관차를 유선형으로 재디자인했다. 로위는 복잡한 기계부품이 보이지 않도록 기차의 표면을 하나의 곡면으로 매끄럽게 씌우고, 검정으로 통일시킨 다음 수평의 줄무늬를 선명하게 그려 유선형을 강조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1934년 세계 최초로 대량생산 방식에 의한 유선형 시판차가 개발되었다. 그것은 크라이슬러사의 ‘에어플로(Airflow)’로, 대중적 유선형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sup>9</sup> 에어플로는 안정성과 편안함을 중시하며 구조와 기계장치를 새롭게 디자인한 결과 부드러운 곡선과 미끈한 라인을 가진 차체를 탄생시켰다. 이 디자인은 너무도 혁신적이어서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큰 영향을 끼쳤다.<sup>10</sup>

유선형은 대량 소비 시대로 진행되는 경제 체제에 적합한 스타일이었다. 신소재인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등 가벼운 재료로 해마다 디자인을 바꿔 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유선형 이미지는 효율성과 생산성 축진의 열망을 반영하며 미국 산업디자이너의 이상적 형태로 제시되었다. 유선형은 기계의 힘에 대한 신뢰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연결되었다. 그러한 긍정적 기대감은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유선형 이미지의 대중적 확산에는 1930년대에 열린 세계박람회도 큰 역할을 했다. 시카고(1933), 샌프란시스코(1939), 뉴욕(1939) 등에서 열린 세계박람회들은 예술을 통해 진보에의 확산을 심어주었다. 특히 ‘진보의 세기’라는 표어를 내건 시카고 세계박람회는 결정적으로 대중에게 유선형 양식을 주지시켰다. 세계박람회들은 전시된 제품뿐 아니라 포스터나 책자 등 홍보물에서도 유선형 양식의 극치를 나타냈다.<sup>11</sup>

한편 미국에서 유선형은 우생학(eugenics)과 밀접하게 연관돼 발달했다. 우생학이란 인류의 유전형질을 인위적으로 개량하려는 이론으로, 인간성에 우열이 있고 그

---

9 原克, 앞의 책(2008), pp.80-83.

10 존 헤스켓, 정무환 옮김, 『산업디자인의 역사』 (시공사, 2004), pp.138-140.

11 Seven Heller & Louise Fili, *Streamline: American Art Deco Graphic Design* (San Francisco: Chronicle Books, 1995), p.65.

것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므로 종의 개량으로 우수한 인류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생학은 20세기 전반까지 큰 호응을 얻으며 서양은 물론 일본과 한국에도 전파되었다.<sup>12</sup>

유선형 디자이너가 제품에 접근하는 방식은 우생학자들이 신체에 접근하는 방식과 같았다. 양쪽 모두 교정(reform)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며 진화적 진보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고자 했다. 또 효율성과 위생을 증진하고, '문명화된' 유토피아의 달성 수단으로서 '이상적 유형(ideal type)'의 실현에 집착했다. 모던한 제품들로 중산층의 취향을 '향상'하려고 한 유선형 디자인은 우생학의 이데올로기를 물질적으로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유선형은 기술을 넘어 하나의 시각이 되었고 새로움, 진보, 세련됨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산업디자이너들은 일상생활을 감화시키는 상징으로 유선형을 장려했다. 유선형 디자인이 속도와 관계없는 건축은 물론 다리미, 식기, 연필깎이 같은 생활용품이나 주방기기, 가구 등 실내장식 전반에까지 사용되었다. 유선형은 '모던'한 것으로 인식돼 모든 사물에 적용되었고, 모든 계층이 누릴 수 있는 그 시대의 보편적 양식(style)이 되었다.

유선형은 미국 문명의 선진성이나 미국의 우수함을 가리키는 기호로 여겨졌다. 그러나 '유선형 시대'는 한편으로 '미국적 생활방식'이라는 허구와 환영의 판타지가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실업과 빈곤의 대공황 시대에 유선형은 놀라운 속도와 풍요로움을 표현해 환상을 심어주고 유행을 주도하며 1930년대 미국 사회를 휩쓸었다.<sup>14</sup>

## 2) 일본의 유선형

일본에서는 1925년 대중 과학잡지 『과학화보(科学画報)』에 '유선형'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자동차 업계의 혁명아 유선형 자동차의 출현」이라는 명칭으로 유럽

---

12 신영전, 「식민지 조선에서 우생운동의 전개와 성격: 1930년대 『우생(優生)』을 중심으로」, 『醫史學』15:2 (2006. 12), pp.133-155 참조.

13 Christina Cogdell, *Eugenic Design: Streamlining America in the 1930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4), p.4.

14 生井英考, 「美女と野獣: 流線形デザインとアメリカニズムのレトリク」, 『武蔵野美術』111 (1999), p.22.

의 최신 자동차를 보도한 것이다. “가능한 한 공기저항을 줄인 신식 자동차”에 대해 최신 개념의 ‘스트림라인’ 또는 ‘유적(流跡)’이라고 칭하고 유선형의 과학적 효용성을 설명했다. 이 기사는 일본에서 유선형 시대의 개막을 알린 것으로 간주된다.<sup>15</sup>

1930년대 들어 대중 과학잡지들의 역할이 더욱더 활발해졌다. 『과학화보』나 『과학지식(科学知識)』 등에서는 매호 특집 기사나 단신 기사를 통해 유선형 이론을 대중에 전파했다. 이 잡지들은 프란츠 크루켄베르크(Franz Kruckenberg)가 설계한 ‘체펠린형 열차’나 ‘딱정벌레 자동차’, 게데스가 디자인한 유선형 대형 기선이나 유선형 덮개로 감싼 증기기관차 등 서양의 주요 유선형 제품들을 속속 소개했다. 이와 함께 관용적이고 친근하며 반복적인 서사로 유선형의 절정을 알리며 유선형의 필요성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켰다.<sup>16</sup>

1930년대 초까지 일본에서 거론된 유선형 사례는 모두 서양의 제품을 소개한 것이었다. 1934년, 비로소 일본 최초로 유선형 열차가 자체 제작돼 남만주철도에서 운행하기 시작했다. 요시노 신타로(吉野信太郎)가 설계한 가와사키 사의 유선형 증기기관차 ‘아시아 호(號)’로, 이 열차는 미국 과학잡지에 실릴 만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일본 유선형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1936년 6월 경성일보에서는 이 기차를 초유선형의 ‘탄환기관차’라고 소개했다.<sup>17</sup> ‘탄환’이라는 용어는 일본 매스컴에서 유선형 기차에 대해 자주 언급한 표현이었다. 속도와 형태만이 아닌 공격적인 무기를 암시하는 이 용어에는 일본의 국가적 야욕이 함축돼 있었다. 대륙을 달린 ‘아시아 호’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 대륙 경영의 상징이기도 했다.<sup>18</sup> 유선형은 대륙 경영을 위한 효율화, 운송 문제 해결을 위한 고속화, 식민지 경영을 위한 기능성 향상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졌다.<sup>19</sup>

유선형 승용차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해 1935년 도요다 자동차에서 일본 최초의 유선형 자동차인 ‘모델 AA’를 개발했다. 이 자동차는 크라이슬러의 ‘에어플로’를 토대로 삼아 외관에 아르데코(Art Deco)와 유선형을 반영한 것이다.<sup>20</sup>

15 原克, 『流線形の考古学: 速度・身体・会社・国家』(東京: 講談社, 2017), pp.292-298 참조.

16 위의 책, p.308.

17 『型破りの初流線型』, 『京城日報』, 1936. 6. 10, p.3.

18 原克, 앞의 책(2017), p.316.

19 위의 책, p.320.

20 [https://en.wikipedia.org/wiki/Toyota\\_AA](https://en.wikipedia.org/wiki/Toyota_AA) (2023. 3. 1 검색).

운송기기만이 아니라 유행가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유선형은 일본 대중문화에 스며들어 일종의 유행 현상이 되었다. 카페 간판에도 ‘유선형 서비스’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유선형은 “낭비를 없앤 원활한 서비스”, “모던하고 스마트한 도시적인 서비스”라는 함축의미를 갖게 되었다. 유선형 용어가 지닌 원래의 물리학적 의미가 본래 맥락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으로 자유롭게 확산해 갔다.<sup>21</sup>

### Ⅲ. 1930년대 조선의 유선형

#### 1. 신문·잡지에 소개된 유선형

우리나라에서 유선형은 1930년대 초 신문들이 해외의 유선형 사례를 자주 소개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1930년대 신문·잡지에 나오는 유선형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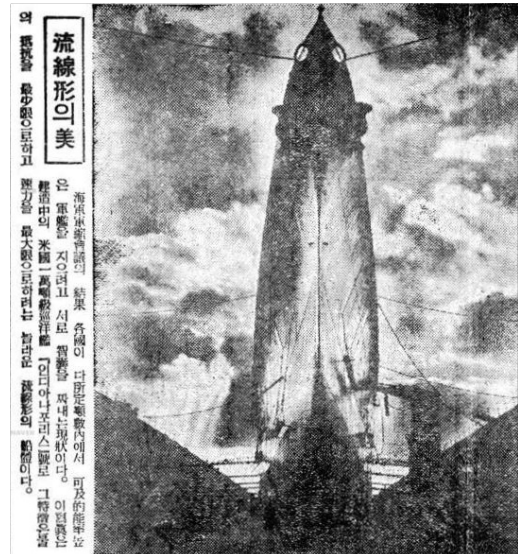
1  
『流線型의美』  
『東亞日報』  
1933. 9. 30.

#### 1) 운송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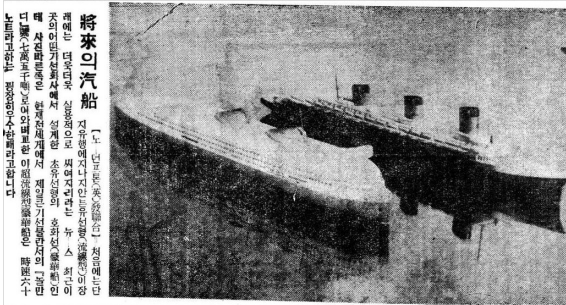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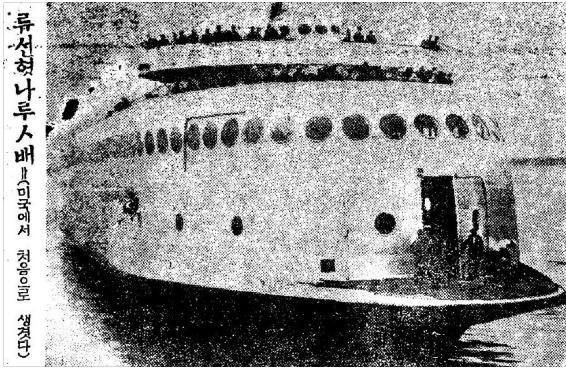
신문에 소개된 유선형 이미지 중 가장 많은 것은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 등의 운송수단이다.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한 신형 기기들로, 빠른 속도를 위한 매끈하고 날렵한 디자인을 강조한다. 유선형 운송수단은 놀랍고 편리하며, 때론 기이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대체로 과학기술이 가져올 향상된 미래 세계를 가리킨다.

##### ① 배와 비행기

조선의 신문지상에서 처음 발견되는 유선형 실물 이미지는 1933년 9월 동아일보에 실린 미국의 순양



21 原克, 앞의 책(2017), pp.332-333.



함 사진이다.<sup>22</sup> 건조 중인 선박을 세로로 높이 세운 모습인데 마치 물고기가 수직으로 솟구치듯 앞이 뾰족하고 뒤는 미끈한 선체를 ‘유선형의 미’로 제시한다. 사진의 설명은 “소정 액수 내에서 가급적 능률 높은 군함을 지으려고” 개발한 것이며, “물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하고 속력을 최대한으로 하려는 놀라운 유선형”이었다. 유선형이 경제적 효율성과 우수한 기능성을 지닌 아름다운 형태로 소개되었다.

1935년 8월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동일한 미국의 유선형 나루트배(페리)의 사진을 보도했다.<sup>23</sup> 이 배는 1935년 미국의 퓨젯 사운드 내비게이션 컴퍼니(Puget Sound Navigation Company)에서 출시한 ‘캘라칼라(Kalakala)호’로, 독특한 아르데코 양식과 고급스런 편의시설을 갖춘 유선형 선박이다. 새로운

2 「유선형 나루트배」 『朝鮮日報』 1935. 8. 13. 석간 p.3

3 「將來의汽船」 『東亞日報』 1935. 12. 10. p.3

전기 용접기술을 적용해 유선형에 적합한 매끄러운 외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행기의 형태를 모방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구조에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선박으로서의 기능성과 편리성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sup>24</sup> 그러나 ‘캘라칼라’는 세계 최초의 유선형 선박으로 대중에게 알려지며 기념비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국내에 보도된 사진은 곡면으로 감싼 하얀 선체에 둥근 창문들이 줄지어 나 있는 유선형 뱃머리를 보여준다.

곧이어 유선형 여객선도 신문에 등장한다. 1935년 12월 동아일보에서 두 가지 선박을 나란히 배치한 사진을 볼 수 있다.<sup>25</sup> 세계에서 제일 크고 빠른 증기 여객선인 프랑스의 ‘SS 노르망디’호와 최근 개발한 유선형 기선을 비교한 것이다. 기자는 새로운 배를 “초유선형의 호화선”, “굉장히 우수한 배”라고 칭하며 장래에는 유선형이 더

22 「流線型의美」, 『東亞日報』, 1933. 9. 30.

23 「流線型은 나루트배에도」, 『東亞日報』, 1935. 8. 6. p.3; 「유선형 나루트배」, 『朝鮮日報』, 1935. 8. 13. 석간 p.3.

24 [https://en.wikipedia.org/wiki/MV\\_Kalakala](https://en.wikipedia.org/wiki/MV_Kalakala) (2023. 3. 8 검색).

육 실용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전망한다.<sup>25</sup> 사진 속의 최신 여객선은 돌출한 굴뚝들을 곡면으로 감싸고 선체를 갑판 위까지 곡면으로 덮어 굴곡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선박은 1932년 게데스가 디자인한 대서양 정기여객선 모형을 연상시킨다.

한편 비행기는 가장 앞선 유선형 기기로서 여타 교통수단에 항공역학의 원리를 제시했다. 처음으로 실용화된 유선형 디자인은 항공산업의 기술적 파생물로 탄생한 것이었다. 나아가 비행기는 새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모든 제품디자인에까지 기능적·미적 영감을 제공했다.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의 이미지가 유선형의 대중적 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sup>26</sup>

조선에서는 비행기에 대한 보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는데, 아직 대중에게 현실감이 낮은 운송기기로서 단지 서양의 신기한 비행기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예를 들면 1934년 4월 동아일보에서는 독일의 수륙양용 '괴비행기' 사진을 싣고, 비행기 바퀴를 고무로 바꾸고 윗부분에 끝이 뾰족한 유선형의 '쇠투구'를 씌워 착륙시 저항을 막게 했다고 설명했다.<sup>27</sup>

비행기는 군사적 목적으로 급속히 발달했으므로 조선에 소개된 것도 서양의 최신 유선형 군용 비행기였다. 즉 동아일보에서는 전(全) 미국 비행대회에 출장한 '십자군사'라는 군용기를 1936년 1월과 1937년 8월 두 차례나 보도하면서 기체가 짧고 속력이 우수한 '초유선형' 비행기라고 강조했다.<sup>28</sup> 같은 군용기 사진을 1년 반이나 지난 후에 다시 실은 것은 1937년 7월 발발한 중일전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전쟁 수행에 우수한 유선형의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전쟁의 기운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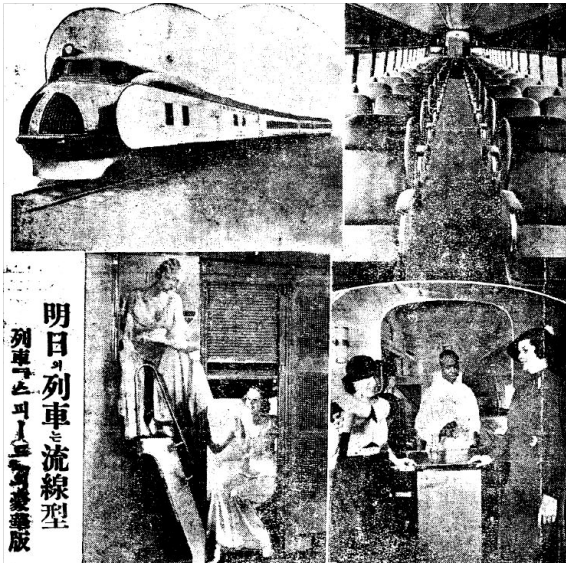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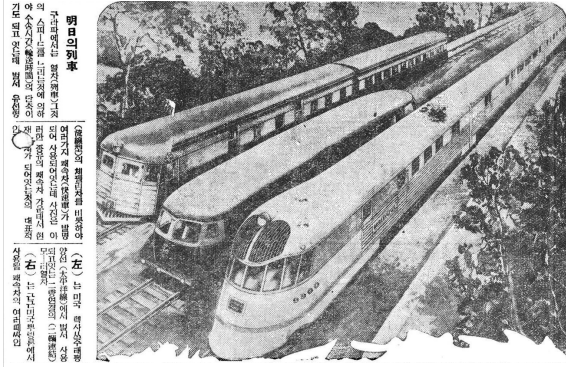
유선형 기차는 속도의 향상뿐 아니라 말끔한 외관으로 현대적 기계미·인공미에 대한 인식을 쇄신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1934년부터 조선의 신문에는 해외 유선형 열차의 사진과 함께 미래의 기차 형태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25 「將來의 汽船」, 『東亞日報』, 1935. 12. 10, p.3.

26 生井英考, 앞의 논문, p.23.

27 「獨逸에 怪飛機: 바퀴 代身 고무球」, 『東亞日報』, 1934. 4. 12, p.2.

28 「초유선형」, 『東亞日報』, 1936. 1. 25, p.4; 「超流線型 '十字軍士' 號」, 『東亞日報』, 1937. 8. 28, p.3.



1934년 1월 동아일보에는 “명일의 열차”라는 제목으로 미국 유선형 열차들의 사진이 실렸다.<sup>4</sup> 서양에서는 이미 속도를 높여 수송시간을 단축할 다양한 유선형 쾌속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 첨가되었다.<sup>29</sup> 사진에 보이는 3종류의 열차(별칭 ‘제퍼’ 등)는 모두 곡면으로 부드럽게 감싼 기관차에 객차들이 매끄럽게 연결된 모습을 앞쪽에서 포착해, 세련된 외관과 함께 원근법적 직선이 경쾌한 속도감을 자아낸다.

같은 해 8월 조선일보에서도 미래의 유선형 열차를 “스피드의 호화판”으로 소개하며 4개의 사진을 실었다.<sup>30</sup> 사진 속 열차는 1934년 유니언 퍼시픽의 ‘스트림라이너’인 ‘시티 오브 살리나(City of Salina)’이다. 신소재인 두랄루민으로 제작한 디젤 전기 철도차량으로, 미국 최초의 경량 유선형 열차로 여겨진다. 앞부분이 둥글게 돌출하고 측면은 위쪽으로 약간 좁아지는 곡선형이며 끝부분은 달걀 모양을 띠는 형태로, 유선형이 강조돼 있다. 3량의 명료한 구조와 측면의 노란색으로 경쾌한 느낌의 디자인을 보여준다. 당시 “바퀴에 괴물 같은 비행기 동체를 올

린 것”이라고 비판받기도 했지만, 유니언 퍼시픽에서는 이 열차를 “오늘날, 미래의 기차”라고 내세우며 자신감을 나타냈다.<sup>31</sup>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의 각 장면은 기차의 부드러운 외관뿐 아니라 좌석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실내, 탑승하는 우아한 여성들, 친절한 안내원의 모습까지 보여준다. 유선형은 스피드와 동일시되고, 스피드는 호화로움을 가져온다. 유선형은 이미 속도뿐 아니라 새로움, 우수함, 편리함, 쾌적함, 친절할 서비스 등을 내포하며 발전한

4 『明日의 열차』  
『東亞日報』  
1934. 1. 26.  
p.6

5 『明日의 열차는 流線型: 列車 스피드의 豪華版』  
『朝鮮日報』  
1934. 8. 21.  
p.3

29 『明日의 열차』, 『東亞日報』, 1934. 1. 26, p.6.

30 『明日의 열차는 流線型: 列車 스피드의 豪華版』, 『朝鮮日報』, 1934. 8. 21,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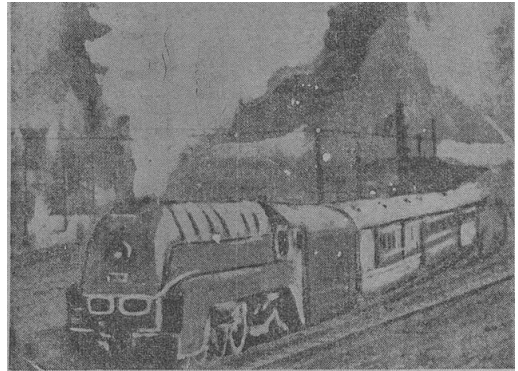
31 Donald J. Bush, *The Streamed Decade* (New York: George Braziller, 1975), pp.61-63.

미래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조선의 신문에 유선형 기차를 다룬 기사가 급격히 등장하기 시작한 1934년은 일본 가와사키사에서 ‘태평양형’ 기관차를 제작해 남만주철도에 도입한 해였다. 그해 11월, 일본어 신문인 부산일보에 이 유선형 기관차가 연기를 뿜으며 달리는 사진을 싣고 세계 제일의 성능을 가진 유선형 기관차 ‘아시아 호’가 만주에 출현했다고 소개했다.<sup>32</sup> 이 기관차는 매끈하게 정리된 외관에 자주 관리를 해야 하는 부위에는 정확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용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sup>33</sup>

기차는 빠른 속도로 대량 수송을 가능케 한 근대의 혁신적 육상 교통수단으로, 비행기나 자동차의 속도에 견주어 유선형의 도입이 시급하게 여겨졌다. 국내에서 유선형 기차가 운행되기를 바라는 심정은 여러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예컨대 1935년 7월 4일자 조선일보에는 “금일 경성역에서 출발한 유선형 열차”라는 제목으로 기차의 사진이 실렸다.<sup>34</sup> 그런데 사진 속 기관차는 연기를 내뿜고 있는 구식 증기기관차이지 유선형 기관차가 아니다. 7월 2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이번에는 응급적으로 경인선의 경쾌차를 이용”하고 “성공하면 앞으로 유선형 기관차와 유선형 열차를 사용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35</sup> 따라서 조선일보의 사진에 사용한 ‘유선형’이라는 단어는 기관차의 외관보다는 향상된 기능을 가리키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마침내 속도를 높여 유선형 열차에 근접했다는 뜻으로, 국내에서 곧 실제로 유선형 기차가 운행되리라는 기대감을 표명한 것이다.

1935년 3월 조선일보에서는 미국 기차 사진을 제시하며 “유선형 만능 시대에 단연 초연한 스피드 기록을 가지고 나온 울트라 쾌속차”라고 했다.<sup>36</sup> 이 열차는 1934년 벌링턴 철도회사에서 제작한 디젤 철도차량 ‘제퍼’로, 1933-34년의 시카고 박람회에



6  
「世界第一の性能:  
流線型機關車  
滿洲に出現のアジア號」  
『釜山日報』  
1934. 11. 8.  
p.2

32 「世界第一の性能: 流線型機關車 滿洲に出現のアジア號」, 『釜山日報』, 1934. 11. 8, 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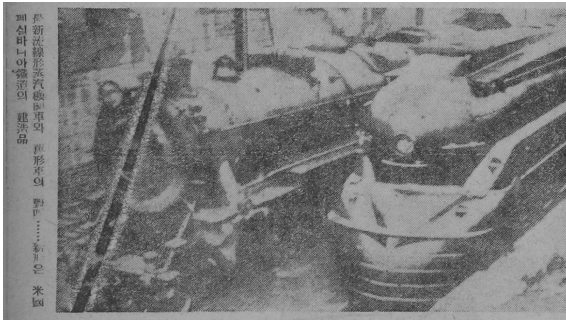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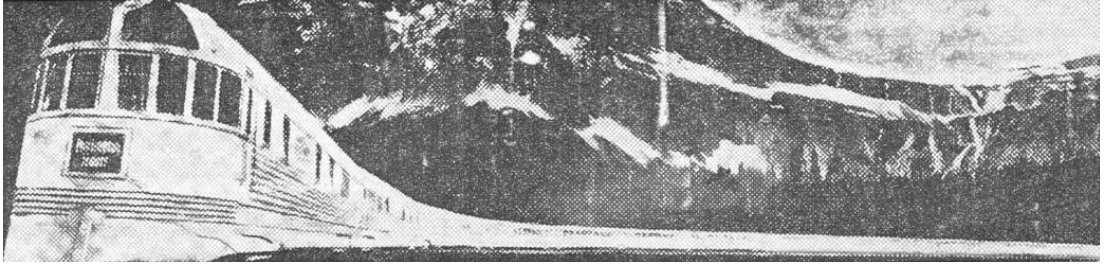
33 헤스켈, 앞의 책, pp.149-150.

34 「今日 京城驛에서 出發한 流線型列車」, 『朝鮮日報』, 1935. 7. 4, 석간 p.2.

35 「京釜間走破六時間 快速列車試運轉」, 『東亞日報』, 1935. 7. 2, p.2.

36 「울트라 流線型 超特急車 出現!」, 『朝鮮日報』, 1935. 3. 12, p.1.





출품되면서 미국의 유선형 기차 중 가장 유명해진 모델이다.<sup>37</sup> 또한 1936년 3월 동아일보에서는 미국의 최신 유선형 열차를 소개하며 “세계 최속의 열차인데 식당, 침실, 사교, 전망 등의 10량을 연결한 ‘은색의 호선(縵線) 호(號)’라고 설명했다.<sup>38</sup> 이 열차는 앞선 ‘제퍼’를 1936년에 ‘파이오니어 제퍼(Pioneer Zephyr)’라는 이

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sup>39</sup> 은빛으로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표면과 길고 긴 열차의 수평 형태는 낭만적이며 호화롭고 안락한 기차 여행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유선형 기차는 디젤 기관차라는 기술혁신과 함께 발달했지만, 기존 증기기관차의 기관을 교체하지 않고도 외피만 리모델링해 유선형으로 만들 수 있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레이먼드 로위가 실현한 것인데, 이 기관차의 이미지가 1936년 5월 조선중앙일보에 실렸다. 로위가 디자인한 유선형 기관차와 구식 증기기관차를 나란히 배치해 신·구를 대조하고 있다.<sup>40</sup>

이처럼 서양에서 개발된 유선형 기차의 주요 모델들이 곧바로 국내 신문에 보도되었다. 단순한 형태로 물고기처럼 빠르고 민첩한 느낌을 주는 유선형은 기술 개발에 대한 선망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기계에 대한 미의식을 높이고 속도의 미학을 증진시켰다.

7 「時速九十浬의 最新流線型列車」 『東亞日報』 1936. 3. 19. p.7

8 「最新流線形蒸氣機關車와 舊形車의 대조」 『朝鮮中央日報』 1936. 5. 8. p.3

37 David Hanks and Anne Hoy, *American Streamlined Design: The World of Tomorrow* (Paris: Flammarion, 2005), p.117.  
 38 「時速九十浬의 最新流線型列車」, 『東亞日報』, 1936. 3. 19, p.7.  
 39 Bush, 앞의 책, p.64 참조.  
 40 「最新流線形蒸氣機關車와 舊形車의 대조」, 『朝鮮中央日報』, 1936. 5. 8, p.3.

### ③ 자동차

유선형이라는 개념이 대중에게 전파된 것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서 비롯됐다. 1930년대에는 유선형이 표피만이 아니라 내부 구조의 개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식이 탄생한다. 1935년경부터 국내 신문에는 해외의 유명하거나 신기한 유선형 자동차 사진과 글이 자주 올라온다. 영국의 자동차 경주자 말콤 캠벨(Malcolm Campbell)이 탑승한 ‘블루버드’ 자동차를 “육상의 스피드 왕”으로 소개하며, “장대한 유선형”, “거대한 기관을 냉각”시키기 위한 기술적 장치와 연료, 속도 등을 언급한다.<sup>41</sup> 아울러 “초 모던 식 버스”라는 제목으로 블루버드와 비슷한 형태의 버스의 사진을 게재하고, 레스토랑, 바, 음악실, 전망실을 설치한 쾌속 질주 차량이라고 설명한다.<sup>42</sup> 여기서도 유선형은 쾌속과 고급 서비스를 연결하며, 모던의 첨단으로 제시된다.

자동차 광고에도 유선형은 중요한 선전 문구로 등장한다. 일본 포드 자동차주식회사 광고에서는 곡선형 외관이 돋보이는 포드 자동차에 승객이 탑승한 그림을 싣고, 이 최신 유선형 자동차는 못사람의 눈길을 끌고 타는 맛이 경쾌하며 안전하다고 광고한다.<sup>43</sup>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유선형이 여유롭고 쾌적한 삶에 대한 환상을 자극해 소비를 촉진하는 수단이 되어간다.

자동차 전람회를 소개하는 기사도 눈에 띄는데, 거기서도 유선형은 최신 모델로서 대세를 이룬다. 1935년 영국에서 열린 자동차 전람회에 유선형이 놀랄 만큼 출품됐다는 소식을 전하고,<sup>44</sup> 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자동차 전람회에 나온 최신식 초유선형 자동차는 꼭 물속에서 생선이 헤엄치는 듯이 보인다고 묘사한다.<sup>45</sup> ‘생선과 같은 형태’는 발달한 유선형 자동차의 이상적 형태로 소개된다. 극단적으로 “철저해진 자동차의 유선형”은 “역학상으로 보아 이상적 형태라고 하는 생선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인식된다.<sup>46</sup>

유선형 자동차는 1930년대에 속도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속도와 크게 관계없는 장난감 자동차나 유모차에도 적용되었고, 우유병 모양의 자동차나 ‘유선형 주택 자동차’처럼 특이한 형태도 등장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신기한 것으로 종종 국내 신문

41 「陸上のスピード王」, 『東亞日報』, 1935. 3. 15,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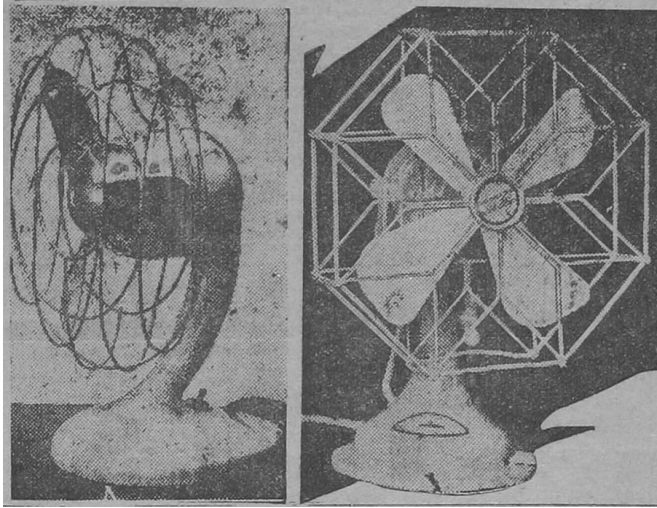
42 「超 모던식 버스」, 『東亞日報』, 1935. 3. 26, p.3.

43 「택시-業者는 流線型 포-드로 利益이 增加」, 『東亞日報』, 1935. 5. 26, p.4 광고.

44 「사람의 이목을 놀랄만한 영국의 유선형 자동차전」, 『東亞日報』, 1935. 11. 28, p.4.

45 「생선이 헤엄치듯 하는 자동차」, 『東亞日報』, 1936. 4. 15, p.3.

46 「철저해진 자동차의 유선형」, 『東亞日報』, 1936. 4. 22, p.3.



9  
「역시 36년은  
선풍기도 유선형」  
『朝鮮中央日報』  
1936. 5. 31.  
p.4

지상에 소개되었다. 해외의 사례가 유입되면서 국내에서도 유선형이 신기술에 의한 선진적인 것, 놀라운 신식으로 여겨지며 대유행을 불러일으켰다.

## 2) 일용품 및 사물

10  
「아프거나 쓰러지 안코  
爽快히 잘 듣는 대학목약」  
『東亞日報』  
1939. 5. 19.  
p.3 광고

운송수단 외에 가전제품 등 일용품에 적용된 유선형 사례도 소개되었다. 이를 테면 1936년 5월 조선중앙일보에서는 신형 선풍기가 '새 모양'이 많고 특히 모터와 기타 부분이 유선형이어서 전체가 '스마트한 유선미'를 나타내게 됐다고 보도했다.<sup>47</sup>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도<sup>9</sup> 중 왼쪽 선풍기는 미국의 로버트 버드롱(Robert Davol Budlong)이 디자인해 1937년 시판을 시작한 탁상용 선풍기 '제퍼(Zephyr)'와 유사해 보인다. 버드롱은 선풍기의 이름을 유명한 유선형 기차에서 따오고 형태는 비행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는 선풍기 날개가 비행기 프로펠러와 같은 기능을 하는 데서 착안해 선풍기와 항공기를 논리적으로 연결했다. 항공기 모터 덮개와 같이 선풍기 모터를 유선형으로 감싸고, 받침대는 물방울 모양으로, 기둥은 유연한 곡선으로 디자인했다.<sup>48</sup> 조선중앙일보의 기자가 선풍기의 형태를 '새 모양'이라고 말한 것은 선풍기 상부와 받침대를 연결하는 기둥의 구부러진 모양이 두루미

47 「역시 36년은 선풍기도 유선형」, 『朝鮮中央日報』, 1936. 5. 31, p.4.

48 Hanks and Hoy, 앞의 책, pp.177-178.

같은 새의 긴 목과 몸통의 유연한 곡선을 연상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날개와 속도가 생명인 새와 선풍기의 공통된 특징을 서로 연결한 것이다. 이미지와 속도의 개념을 모두 충족한 최신의 디자인을 ‘스마트한 유선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화장품이나 의약품 용기도 유선형이 되어, 그 예를 1939년부터 1940년까지 계속된 ‘대한목약’의 인약 광고에서 볼 수 있다.<sup>49</sup> 배우 최승희가 눈에 약을 넣는 사진과 함께 별도로 약병을 클로즈업해 ‘유선형 용기’라고 강조한다.<sup>49</sup> 유선형은 끝이 뾰족하고 가름하며 매끄러운 형태를 가리키며, 스마트하고 편리하며 첨단 자동의 과학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맑은 눈을 가진 미인, 건강한 신체의 아름다움과 연결된다.

의약품 용기의 형태뿐 아니라 약의 효과를 선전하는 데도 유선형이 유효했다. 1936년 2월 조선일보의 한 광고는 “유선형 스피드 시대”라는 문구와 함께 힘차게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비행기의 사진을 크게 실었다.<sup>50</sup> 이미지만 보면 마치 운송수단이 나 여행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약회사의 위장약 광고이다. “기관의 기계가 잘 돌아야” 급행열차든 비행기든 속력을 내듯이 신체의 기관이 건강해야 한다는 의미로, 약의 빠르고 신기한 효능을 유선형 기계의 속도에 견주어 표현하고 있다.

유선형은 공업 제품뿐 아니라 자연물에도 적용돼 고구마, 아스파라거스, 물개, 돼지, 지렁이, 뱀 등을 유선형으로 칭하기도 한다.<sup>51</sup> 일상생활 전반에서 유선형은 흔하디흔한 수식어가 된 것이다.

### 3) 패션

유선형은 일상생활에서 변화와 유행을 주도하는 패션에도 빈번히 적용되었다. 1934년 초부터 조선의 신문에서 서양의 신사 숙녀복을 다루며 유선형을 언급하기 시작한다. 1934년 4월 동아일보에서는 양복의 재봉을 배울 것을 권하면서, 현대인이 원하는 “리지(理智)와 명량과 경쾌”의 “새 감각을 가진” 서양식 여성복 정장을 소개한다. 이러한 복장은 “자동차에 있는 유선형을 집어넣은” 것이라는 프랑스 파리의 보도를 인용하고, 유선형이란 “움직임(動)”을 의미하는 것”인데 ‘움직임’이란 “어제와 오

49 「아푸거나 쓰리지 안코 爽快히 잘 듣는 대학목약」, 『東亞日報』, 1939. 5. 19, p.3 광고; 「紫外線禍로부터 視力を 保護하라」, 『東亞日報』, 1940. 2. 23, p.2 광고.

50 「流線型 스피드 시대」, 『朝鮮日報』, 1936. 2. 25, 석간 p.3 광고.

51 夕影, 「流線型時代-3: 標準 달려진 美男美女氏」, 『朝鮮日報』, 1935. 2. 5, 석간 p.4.



11  
 「따러 변하는 부인 아동복:  
 반대 빛갈의 대조가 유행」  
 『東亞日報』  
 1935. 3. 4.  
 p.4

늘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up>52</sup> 다시 말해 패션에서 유선형은 역동적 형태, 활동적인 기능, 급격한 변동, 시각적 아름다움 등을 가리키며, 그 모두가 ‘현대적인 것’으로 포괄됨을 알 수 있다.

남성복에도 유선형이 적용되는데, 1935년 1월에는 새봄에 신사의 모자에 유선형이 유행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사가 나온다. 유선형 모자란 모자챙에 리본 테를 두르지 않은 “젊은 스냅 스타일”로서, “천정이 둥글고 좁게 되고 뒤가 좀 높은 것”이라고 한다.<sup>53</sup> 즉 끊어짐 없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선의 형태로, 젊고 단순하고 경쾌하며 명랑한 맛이 나는 것을 유선형으로 보았다.

유선형 패션은 특히 여성복에서 절정에 달한다. ‘유선형 부인복’으로 제시된 사진들을 보면 정장 수

트, 투피스, 원피스 등 종류가 다양하다. 대체로 인위적 장식이나 보정물 없이 무릎 밑으로 길게 내려오는 스커트나 바지 정장이 몸매를 날씬하게 보이도록 한다. 신체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직물의 유연한 선이 자유롭고 편안함을 강조하며, 단순하지만 종종 강렬한 색채가 사용되기도 한다.<sup>54</sup>

이러한 복식은 1920~1930년대에 국제적으로 유행한 아르데코 경향에 해당한다. 아르데코 양식은 곡선과 직선의 결합, 이국적·기하학적 모티프의 차용, 이질적 재료의 혼용, 단순함과 화려함의 교차, 뚜렷한 색채 대비 등 이질적인 것들이 결합해 절충적이면서도 대담한 성격을 띤다. 1930년대에 아르데코는 ‘모던 유선형(Streamline moderne)’과 같은 의미로 여겨졌다. 곡선에 기초한 유선형은 직선적인 아르데코와는 다른 양식이지만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유선형 패션은 미끈하고 날렵한 곡선만이 아니라 직선도 과감하게 차용했다. 간편하고 활동적이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효율적인 의상은 아르데코의 특징이자 유선형의 특징이기도 했다.

52 「洋裁縫講習會에서 배울 새 감각을 가진 『스-쓰』」, 『東亞日報』, 1934. 4. 3, p.6.  
 53 「봄 소식은 모자로부터: 새봄에 유행할 유선형 모자」, 『東亞日報』, 1935. 1. 23, p.4.  
 54 「따러 변하는 부인 아동복: 반대 빛갈의 대조가 유행」, 『東亞日報』, 1935. 3. 4, p.4.

이 밖에 넥타이<sup>55</sup> 머리 스타일,<sup>56</sup> 수영복,<sup>57</sup> 옷감<sup>58</sup>에 이르기까지 유선형 패션의 사례는 다양하게 언급된다. 젊고 경쾌하고 서양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던 유선형’ 패션은 신감각을 지닌 현대적인 신사·숙녀를 드러내는 외면적 표상이었다.

#### 4) 인체

유선형의 기원과 의미는 기계뿐 아니라 물고기, 돌고래, 새 등 동물의 물리적 형태에서 온 유기적인 것과 관련된다. 그러한 자연적이고 생물학적 관점에서 유선형은 당연히 인체에도 적용되었다. 1930년대 중엽 조선에서도 스포츠맨이나 여성의 이상적인 신체를 유선형이라고 칭하게 된다. 1935년 2월 초 조선일보는 안석영(安夕影)의 「유선형시대」 칼럼을 5회에 걸쳐 그림과 함께 연재했는데 그 첫 기사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한다.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스피드 만능시대의 동체는 모두가 유선형으로 박귀는 모양이다. 빠르게! 빠르게 그러나 유선형은 빠르다는 데뿐 아니라 현대인의 시각에 미의 초점이 되는지도 모른다. 여자의 양말 신흠 다리를 보아도 유선형이라고 길로 달리는, 말이 깔기는 풍도 유선형, 스포츠인의 몸도 여인의 눈에는 유선형으로 보히는 모양이다.<sup>59</sup>

‘스피드 만능시대’에 모든 동체에 적용되는 유선형은 움직임과 속도가 필수인 스포츠맨의 몸에도 해당된다. 그런데 여자들이 스포츠맨에 열광하는 것은 속도 때문이 아니라 “여성에게 유선형 사상이 잘 보급된 모양인 까닭”으로, 유선형이 이미 “현대인의 시각에 미의 초점”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유선형이 미의 표준으로 여겨지면서 여성의 신체에 빈번히 적용되었다. ‘유선형 미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해, 1935년 2월 매일신보에서는 “류선이란 두 글자는 다분히 새로운 근대적 감각을 가지고 시대의 물결우에 범람”하며 “필경 녀인에게까지도

55 「따러 변하는 남자 장신구: 부인 모자가 변해 된 모자」, 『東亞日報』, 1935. 3. 2, p.4.

56 「三十五年型結髮」, 『朝鮮日報』, 1934. 11. 29, 석간 p.3.

57 「超流線型海水浴服」, 『每日申報』, 1935. 8. 10, p.3.

58 「뛰는 流線型時代 옷감은 白商會時代」, 『朝鮮日報』, 1935. 7. 12, 석간 p.2, 광고.

59 夕影, 「流線型時代 1-砲彈과 現代의 愛人」, 『朝鮮日報』, 1935. 2. 2, 석간 p.4.



12  
『미쓰·一九三六년.  
키적은 유선형의 퀴그레앙』  
『東亞日報』  
1935. 4. 11.  
p.4

류선형 미인이 생기게 되어 1935년은 정히 류선형 시대를 출현식하고 있다”고 하였다.<sup>60</sup>

또 1935년 4월 뉴욕에서 열린 국제미용술사대 회의에서 결의한 바에 의하면 ‘미스 1936년’은 유선형의 키가 작은 여성이라고 한다.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는 “유선형이라는 말은 본래 자연에 적응하는 것을 말함이니 이 결의는 말하자면 자연을 현대적으로 살리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sup>61</sup>

‘유선형 미인’의 기준은 얼굴보다는 신체의 곡선미가 더 중요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이상적인 치수를 기준으로 미인의 표준을 정하고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측정해 미인의 등급을 매기는 기계가 개발되었고 1937년 동아일보에도 그 사진이 실렸다.<sup>62</sup> 미인을 수치화하고 등급화하는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자 그에 맞춰 몸매를 가꾸는 미용체조가 이상적인 미용술로 보급되었다.<sup>63</sup>

이처럼 신체를 개량해 규격화된 몸을 만드는 것은 우생학의 사상과 밀접히 연결된다. 허리의 군살처럼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날씬한 몸이 우월하고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우생학에서 열등 인자를 배제하고 우등 인자만을 선택해 ‘이상적 유형’을 배양하려는 것과 같은 발상이다. 조선에서는 미국처럼 우생학이 유선형 신체 만들기 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우수한 신체미의 표준에 따른 미인대회를 개최하고, 운동에 의한 건강하고 청결한 신체를 강조한 것은 우생학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전보다 노출이 많아지고 미의 표준에 맞춰 신체 부위를 측정하고 단련하면서 신체미의 기준도 얼굴, 등덜미, 허리, 다리 등 부위별로 분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체를 통합된 전체가 아니라 분리된 대상으로 바라보는 파편화된 관점이 생

한편 이전보다 노출이 많아지고 미의 표준에 맞춰 신체 부위를 측정하고 단련하면서 신체미의 기준도 얼굴, 등덜미, 허리, 다리 등 부위별로 분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체를 통합된 전체가 아니라 분리된 대상으로 바라보는 파편화된 관점이 생

60 「一九三五년은 正히 流線型時代, 『每日申報』, 1935. 2. 15, 석간 p.3.  
61 「미쓰·一九三六년이 되시라는 분은? 단연 류선형에다 키가 적어야 한다, 『朝鮮中央日報』, 1935. 4. 19, p.4 「미쓰·一九三六년. 키적은 유선형의 퀴그레앙, 『東亞日報』, 1935. 4. 11, p.4.  
62 「미인 측정하는 기계, 『東亞日報』, 1937. 7. 21, 석간 p.3.  
63 김지혜, 「미스 조선, 근대기 미인대회와 미인 이미지, 『미술사논단』38 (2014. 6), pp.219-221.

겨났다.<sup>64</sup> ‘유선형 몸매’도 전신보다 신체 각 부분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이제 여성의 신체가 공공연하게 ‘부분 대상(part object)’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안석영은 모던 걸의 유선형 다리가 남성에게 포탄처럼 작용한다고 하면서 유선형 포탄이 과거 얼마나 인간을 속살(速殺)했는지 상기시킨다.<sup>65</sup> 여성의 다리가 유선형의 포탄으로, 남자를 공격할 무기로 여겨질 만큼 유선형을 가진 여성은 팜므 파탈(femme fatale)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몸은 공공장소나 매스컴에서 흔히 남성의 관음증적 시선을 자극하는 일종의 페티시(fetish)로 작용하게 되었다.

‘페티시’는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사물이나 신체 부분을 뜻하는 한편,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아케이드에 진열된 상품에 적용한 바와 같이 ‘물신(物神)’이라는 의미가 있다.<sup>66</sup> 여성의 유선형 신체는 성적 페티시이자 자본주의 시장에서 ‘상품물신’이 되고 있다. 안석영은 “마네킹 꼴을 선택할 때에도 이 유선형이 문제되고, 신부를 고르는 데도, 점원을 고르는 데도, 카페의 웨트레스도, 배우도 모든 게 유선형이어야 하는 때다”<sup>67</sup>라고 지적한다. 유선형 제품이 잘 팔리듯이 여성의 신체도 유선형이어야 상품으로서 가치가 높은 것이다. 같은 기사의 삽화에서 여성은 배후의 남자와 줄로 연결돼 있다.<sup>도13</sup> 그 남자는 고대 바빌론인의 얼굴에 현대인의 복장을 하고 있다. 안석영은 바빌론이 몰락하는 데 일조한 육체적 향락을 “유선형 유희”라고 부르며 현대의 유선형 선호 풍조와 동일시한다. 검은 덩어리로 표현된 여성의 신체는 유선형 유희의 대상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개성을 가진 주체적 인간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매매되는 성적 상품으로 취급된다.<sup>68</sup>



13  
夕影  
「流線型時代 4- 流線型都市 바빌론 城人」  
『朝鮮日報』  
1935. 2. 6.  
석간 p.4

64 한민주, 『해부대 위의 여자들: 근대 여성과 과학문화사』 (서강대학교출판부, 2017), pp.418-424.

65 夕影, 앞의 글(1935. 2. 2)

66 발터 벤야민, 조형준 역, 『아케이드 프로젝트 1, 2』 (새물결, 2013) 참조.

67 夕影, 「流線型時代 4- 流線型都市 바빌론 城人」, 『朝鮮日報』, 1935. 2. 6, 석간 p.4.

68 신명직, 「안석영 만문만화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165 참조.



## 5) 추상적 개념

유선형이라는 용어는 눈에 보이는 사물의 형태만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이나 조직의 능률, 사람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같은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는 데도 적용되었다.

1935년 3월에는 경성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종로 네거리에 유선형 교통정리기를 처음으로 설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존의 교통정리기가 때때로 고장을 일으키므로 “도시교통의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부내의 각 교통 난소에 점차 유선형의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sup>69</sup> 여기서 ‘유선형 교통정리기’라는 표현은 형태보다는 기능에 관한 것으로, 첨단 기술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능률적인 교통 시스템을 가리킨다.

또 1935년 8월 조선민보에서는 “영터리 유선형 사용료 징수”라는 제목으로 대구부의 무차별적 도로사용료 징수를 비판한다. 징수요금이 천차만별이며 구역 제한도 없고, 경계가 모호해 노점상이 극성하는 등, 대구부 전체가 무통제라는 내용이다.<sup>70</sup> 이러한 현상을 ‘영터리 유선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올바른 유선형’은 반대로 균등하고 명확하며 계획과 통제가 가능한 관리 시스템과 체계적인 실행을 의미할 것이다.

‘유선형 예의’라는 말도 등장한다. 미국 오레곤 주립 여자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예의위원회’가 조직돼 테이블이 앉을 때 상석으로부터 차례로 앉을 것을 지도하는데, 이를 유선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sup>71</sup> 여기서 유선형은 순서, 규칙, 규율 등을 가리키며, 집단의 질서를 뒷받침할 규범과 예의를 뜻한다. 유선형이 바람직한 행동양식이나 도덕관념에도 적용되고 있다.

1930년대 말 전쟁의 기운이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유선형은 군사 용어로 자주 언급되었다. 군용 비행기처럼 효율적 첨단장비뿐만 아니라 군대의 편성에도 유선형이 적용되었다. 1939년 미국에서 새로 건설할 ‘유선형 사단’은 쾌속 차량 부대로서 기계화 장비를 완비하고, 쾌속 집결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원과 차량이 몇 배로 증가

69 「京城에 처음 나타날 流線型交通整理機」, 『朝鮮中央日報』, 1935. 3. 12, p.2.

70 「これはこれは驚いた流線型使用料徴収-大邱府の無統制ぶりかずかずの非難が擡頭」, 『朝鮮民報』, 1935. 8. 16.

71 「流線型禮儀」, 『朝鮮日報』, 1938. 3. 9, 석간 p.4.

할 대규모 사단이라고 한다.<sup>72</sup> 군대의 빠른 이동속도를 보이지 않는 유선형과 연결하고 전에 없는 규모의 최신식 사단임을 강조한다.

## 2. 조선의 유선형에 대한 인식

조선에서 유선형의 개념은 1930년대 초 해외 뉴스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유입되었다. 유선형의 대상도 최신 운송기거나 신제품, 유행하는 패션과 같이 주로 사물에 한정됐다. 그러나 얼마 안 가 1935년경에는 외국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주변에서 만나는 인물이나 사물, 나아가 추상적 개념을 가리킬 만큼 유선형이라는 용어가 일상에서 범람하게 된다. 이에 유선형에 대한 정의와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하는데, 당시의 언론과 문학작품에서 조선의 유선형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1) 속도와 시간의 은유

1935년 2월 동아일보에는 「유선형은 무엇?」이라는 기사가 실려 유선형의 정의를 내렸다. “속력을 내라고 만들어낸 것이 유선형 기차”라고 하면서, 기차에 등그름한 철갑을 씌워 “공기 방해를 받지 안코 달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sup>73</sup> 비록 기차에 한정됐지만 ‘유선형’이란 표면을 둥글고 매끈하게 해서 공기저항을 줄여 속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대중에게 속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빠른 속도’는 근대 기술의 성과였다. 1930년대에 세계적으로 자동차, 비행기 등의 발달로 운송수단의 스피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신문에서는 해외의 자동차 경주, 보트 경기 등 열린 속도 경쟁을 보도하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유명 경주자들이 개발한 유선형 발명품들을 함께 소개했다.<sup>74</sup> 스피드는 현대인이 지향해야 할 태도로 여겨졌으며, 유선형은 스피드 시대에 걸맞은 모던한 형태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1930년대 말에 이르면 신문에서 유선형의 스피드 향상 효과에 대해 좀 더 과학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한다. 유선형이 물고기처럼 자동차의 앞뒤를 뽀족하게 해 속도를

72 「歐洲動亂으로 米國陸軍擴充: 流線型七個師團新設」, 『東亞日報』, 1939. 10. 9, p.1.

73 「유선형은 무엇?」, 『東亞日報』, 1934. 2. 6, p.4.

74 「『스피드』狂躁曲」 1, 2, 『每日申報』, 1936. 12. 7-8, 각 p.3.



14  
夕影  
『流線型時代-2: 대머리先生-成層圈飛行』  
『朝鮮日報』  
1935. 2. 3.  
석간 p.4

의 성급한 행동이나 급변하는 생각을 가리킬 만큼 유선형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든 빠른 속도의 비유이자 표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선형의 속도는 근대의 특징인 시공간의 압축을 가속시키며 일상의 시간 개념도 변화시켰다. 스포츠 기자 이길용(李吉用)은 경부선 ‘유선형’ 시운전에 시승한 후 빠른 속도를 실감하고 유선형이 거리를 단축해 앞으로는 분을 넘어 초로 따질 시절이 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우리의 시계에 초침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한 초, 한 초를 아껴 쓸 때가 곧이 ‘유선형’이 가져오는 앞날 시대상일 것”이라고 본다.<sup>75</sup>

유선형으로 향상된 속도에 의해 초 단위로 살아갈 미래를 예견한 것은 시공간의 압축과 아울러 근대성(modernity)의 또 다른 측면을 가리킨다. 시계로 표준화된 시간은 누구에게나 항상 똑같이 주어지는 정량적인 것이므로 효율적으로 살려면 시간을 일정하게 세분화하고 절약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미래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초를 다투는 긴박함이 요구되는 시대다. 유선형이 가져온 균일함, 균등함, 규칙성, 정확함이 근대인의 사고방식과 습관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내기 위해 고안됐다고 하면서 형태에 따른 저항 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비교하기도 한다.<sup>75</sup>

무엇이든 빠른 것은 유선형에 속했다. 안석영은 사람의 일생을 ‘스피드 인생’이라고 하며, 명사들의 대머리를 보고 일생이 너무 빠른 것을 인식하며 유선형을 떠올린다.<sup>76</sup> 또 “결혼도 횡답 잘하고, 시집가기 전에 아이도 횡답 잘 낳고, 자살도 횡답 잘하고 하는 요새 젊은 여자들의 행동은 모두가 유선형식”<sup>77</sup>이라고 하거나, “이저버리고 또 깨닫고 또 이저버리는” “사람의 생각도 유선형인 모양”이라고 한다.<sup>78</sup> 젊은이들

75 「유선형(流線型)은 옛저서 생겨졌나」, 『每日申報』, 1938. 9. 11, p.4.  
76 夕影, 「流線型時代-2: 대머리先生-成層圈飛行」, 『朝鮮日報』, 1935. 2. 3, 석간 p.4.  
77 夕影, 앞의 글(1935. 2. 5).  
78 夕影, 「流線型時代-5: 白頭山打鈴, 알프스打鈴」, 『朝鮮日報』, 1935. 2. 7, 석간 p.4.  
79 李吉用, 「流線型」, 『東亞日報』, 1935. 7. 7, p.3.

## 2) 유선형의 미: 자연미, 곡선미, 여성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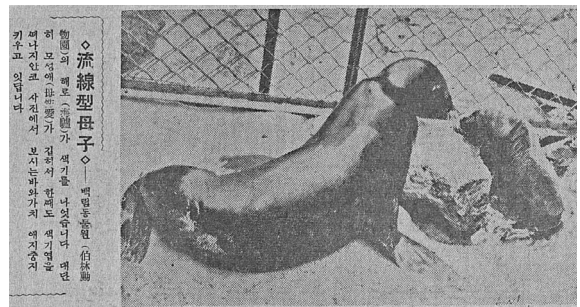
시양에서 유선형이라는 말이 대중에게 처음 등장할 때 종종 자연이 언급되었다. 빗방울 형태, 달걀 모양, 강의 흐름 등에 비유되었고, 물고기와 새가 이상적인 유선형으로 제시되었다. 자연은 완전하며 올바른 규범으로 여겨져 유선형의 완벽함을 보증했다.

조선에서도 유선형은 대개 물의 흐름이나 물고기 등 자연물의 형태로 소개되었다. 움직임이 빠른 자연물의 곡선이 유선형의 기본으로 인식되었다. 예를 들어 베를린 동물원의 물개가 새끼를 낳았다는 뉴스가 있다. 1935년 매일신보에서는 어미와 새끼 물개의 다정한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하면서 “유선형 모자(母子)”라고 제목을 달았다.<sup>80</sup> 물에 젖은 물개의 미끈한 형태에서 헤엄칠 때의 유연함과 속도를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진에서는 물개의 움직임보다는 몸의 굴곡진 곡선이 반복되는 것이 눈에 띈다. 여기서 유선형은 자연이 합당하게 만들어낸 ‘곡선적인 것’을 가리킨다.

속도와 전혀 관련 없는 사물도 곡선이면 유선형이라는 주장이 대두한다. 소설가 이태준(李泰俊)은 조선은 곡선의 나라라고 하면서 지형이나 전통적 마을 풍경이 모두 아름다운 곡선이라고 언급한다. 그리고 한때 유행한 유선형은 만년필이나 자동차에 적용됐을 뿐이며, 현대의 신문화는 “직선 선수”라고 주장한다.<sup>81</sup> 유선형은 곡선형이므로 조선의 전통적인 것과 유사하며, 현대에는 “지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sup>82</sup> 따라서 제품에 적용된 유선형은 일시적 유행일 뿐, 신문화가 아닌 것으로 치부한다. 유선형을 단지 곡선적인 외형으로만 간주한 시각이다.

또한 1934년 『삼천리』 잡지에 실린 “미인제 조실 참관” 기사에는 화신백화점 미장실에서 머리 손질을 하는 유명 여성을 보며 “삼단 가튼 거문머리 그것을 파도물결 모양으로 곱슬곱슬 물

15  
「流線型母子」  
『每日申報』  
1935. 8. 3.  
p.3



80 「流線型母子」, 『每日申報』, 1935. 8. 3, p.3.

81 李泰俊, 「李泰俊文章選」, 『三千里』10:12(1938. 12. 1), pp.261-262.

82 오창섭, 「일제강점기 전후 신체와 미(美)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의 출현」,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17:3(2011. 9), p.454.

결쳐 흐르는 류행의 유선형으로 하림이 목적인 듯”하다고 설명한다.<sup>83</sup> 서양식으로 파마한 긴 머리의 구불거리는 곡선에서 유행하는 유선형을 연상한다.

유선형은 서구적인 미인뿐 아니라 전통적인 자연스러운 여성미를 가리키는 데도 적용되었다. 유선형이란 옛날 진시황이 만들게 한 버들가지 같은 눈썹(柳眉)과 같은 것이라고 하며, 그것을 현대어로 고치면 바로 유선형이라는 견해도 나온다.<sup>84</sup> 자연의 곡선에 비유한 동양의 고전적 여성미에 유선형을 적용한 것이다. 이는 당대에 유행하는 유선형을 동양 전통과 연결하려는 시도이지만, 이 또한 단순히 ‘유선형=곡선’이라는 피상적 접근이며, 근대 여성에게 깊이 침투한 유선형 미에 대한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진정한 ‘유선형 미인’이란 자연미를 현대적으로 살린 여성을 의미했다. 신문에 자주 실린 ‘구라부(クラブ) 화장품’ 광고에는 “유선형시대: 구라부 화장의 자연미시대”라는 제목과 함께 “신사의 정발(整髮) 숙녀의 미용에 매끈하게…스마트하게”, “마음을 끄는 모던인 자연미 화장”이라는 문구가 나온다.<sup>85</sup> 매끈하고 스마트한 유선형을 자연미 화장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마음을 끄는 현대적인 아름다움이라고 광고한다.

이처럼 미인의 조건으로 자연스런 화장과 머리의 곡선미 등이 강조되었고, 곡선미를 형성하는 체조나 신체 보정 방법이 보급되었다. 자연미로서의 곡선미를 추구하는 것은 원시적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연 불합리한 상태”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인간의 육체를 재발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근대적 여성의 곡선미는 자연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이 결합한 것으로, “과학기술의 인식이 반영된 유선형 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sup>86</sup>

### 3) 모던의 신화 유선형

속도의 기호였던 유선형은 곡선의 형태로 이미지화해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조화롭고 이상적인 형태미의 기준이 되었다. 더 나아가 기능이나 외형에 국한되지 않

83 「美人製造室 參觀, 吳葉舟氏의 美粧室」, 『三千里』68(1934. 8. 1), p.138.

84 「三五년형 스타일 핑크빛 유선형: 근본을 따져보면 옛날에도 잇었지요」, 『東亞日報』, 1935. 3. 12, p.4.

85 「クラブ 堂級 化粧品」, 『東亞日報』, 1935. 2. 19, 석간 1면 광고.

86 한민주, 앞의 책, pp.415-417.

고 근대적인 태도, 사상, 방식 등 '모던'한 것의 표상으로 여겨졌다. 유선형은 세련되고 도시적인 것, 우수하고 합리적인 것, 선진적이며 미래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기호로 재탄생했다. 유선형이라는 기호가 지닌 본래의 1차적 의미에 2차, 3차 의미가 더해져 문화적 코드를 형성하고 당대의 신화(myth)가 된 것이다.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에 의하면 현대의 신화는 부르주아 사회의 문화적 코드가 생산한 이데올로기적 환상이다.<sup>87</sup> 바르트의 신화론을 적용하면 유선형은 의미가 충만하지만 동시에 '텅 빈 기표'가 되어 새로운 기의로 채워진다. 바로 우수성, 우월성, 상품성, 현대성, 합리성과 같은 기의들이 첨가돼 처음 의미와 다른 '환상'적인 신화로 재탄생한다.

일례로 1936년 4월 조선중앙일보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 사진과 함께 그의 영화 <유선형시대>에 대한 대중의 과도한 열기를 보도했다.<sup>88</sup> 이 기사는 일본 잡지 『과학 화보』 1936년 4월호에 실린 기사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잡지는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은 채플린의 최신 영화를 <유선형 시대>라고 소개했다.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되고 있는 현대 문화를 통렬하게 비판한” 영화라고 하면서 ‘모던 타임스(Modern Times)’라는 원래 제목을 ‘유선형 시대’로 번역한 것이다.<sup>89</sup> 단어 자체의 뜻으로만 보면 매우 엉뚱한 번역이다. 이렇게 번안된 채로 영화 <유선형시대>는 조선에 수입되었고 일본에서 바라본 ‘모던=유선형’이라는 시각도 함께 유입되었다. 유선형은 더 이상 속도도 곡선도 이상적 형태도 아닌 근대라는 시대의 기호로 재탄생해 ‘모던’의 신화가 되었다.

한편 문학에서 유선형은 모던한 표현기법이나 모더니즘 문학 자체를 지칭하기도 했다. 시인 정지용(鄭芝溶)은 유선형을 모호하고 다층적인 암시로 표현했다. 그가 1936년에 발표한 시 「유선애상(流線哀傷)」은 난해한 모더니즘 문학작품이다.<sup>90</sup> ‘유선애상’은 ‘유선형 애상’과 같은 의미로 여겨진다.<sup>91</sup> 그 뜻은 ‘유선형 대상에서 받은 슬픈 상처’이거나 ‘유선형과 같은 슬픈 상처’라 할 수 있다. 제목 외에는 시의 내용에

87 Roland Barthes, *Mythologies* (New York: Hill and Wang, 1972), pp.109-130 참고.

88 「웃음의 英雄 짜푸링의 憂鬱」, 『朝鮮中央日報』, 1936 4. 16, p.3.

89 原克, 앞의 책(2008), pp.328-329.

90 鄭芝溶, 「流線哀傷」, 『詩와 小說』(장간호, 1936).

91 『詩와 小說』에 발표 당시 시의 제목이 본문에는 ‘流線哀傷’으로, 목차에는 ‘流線型哀傷’으로 표기되었다. 소래섭, 「정지용의 시 「유선애상」 다시 읽기」, 한국현대문학회 2006년 하계 학술대회 발표문(2006. 7), pp.164-165 참조.

유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시의 본문에 나오는 악기와 의성어, 행렬, 아스팔트, 달리기 등 비유적 단어들로 미루어 유선형의 대상을 오리, 자동차, 유성기, 담배 파이프, 자전거 등으로 보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이와 달리 '유선'이 어떤 물체를 가리키기보다는 유선형으로 대변되는 근대적 경향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미 유선형이라는 용어가 사물만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 사상, 감정 등 추상적인 것에까지 적용될 만큼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선애상'은 "가장 현대적이고 유행의 첨단을 걷는 애상" 또는 "유선형으로 대표되는 당대 풍속에 대한 애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sup>92</sup> 또 다른 견해로, 유선형이란 모던한 시를 가리키며, 정지용은 모던한 기법을 극단까지 밀고 나감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한계를 인식하고 근대시 실험의 실패에 대한 슬픔을 읊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sup>93</sup>

다양한 해석이 말해주듯 정지용의 '유선', '유선형'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시에 나오는 '연미복', '꼰돌라'처럼 어떤 유선형의 물체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피아노', '반음키', '소리'처럼 음악을 암시하기도 하며, 나아가 현대적인 것에 대한 추종과 유행을 가리키기도 한다. 또 시인에게는 현대의 문학, 즉 난해한 모더니즘 시를 의미할 수 있다. 그런데 유선형으로 암시된 것은 "허리가 모조리 가느래지도록 슬픈 행렬"에 속하며 "상장(喪章)을 두른 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만 호접(胡蝶)같이 죽"어버리는 꿈이나 한때의 환상 같은 것이다. 「유선애상」은 현대화·서구화의 급속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유선형을 따라야만 하는 어설피고 힘겨운 투쟁을 엿보게 한다. '슬픈 상처(哀傷)'는 유선형으로 인한 것인데, 그 상처마저도 역시 현대적인 것이므로 유선형 상처라고 불린다. 이처럼 '유선형'은 근대성에 대한 은유이자 근대성과 유선형 자체를 비판하는 메타용어가 되었다.

---

92 위의 논문, p.167.

93 이수정, 「'유선애상', 실패의 체험담: 자전거로 비유된 '조선 근대시」, 『한국현대문학연구』47 (2015. 12), pp.46-47.

## IV. 맺음말

유선형은 본래 과학과 산업에서 발달한 형식이었으나 이미지로서 미학적 의미를 띠게 되었고, 점차 원래의 의미를 떠나 다양한 현상을 지칭하며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 유선형의 의미의 증폭과 변화는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유선형을 연구한 일본 학자 하라 가쓰미(原克)는 20세기 전반 유선형의 세계적인 유행을 ‘유선형 신드롬’이라고 불렀다. 즉 유선형을 공통된 병적 징후나 일종의 감염증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는 1930년대에 유선형이 미국에서는 우생학과 융합해 인간의 우열을 나누고 장애 인자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변화했고, 독일에서는 자국 기술의 우수성을 가리키며 민족주의와 융합해 나치 독일의 국가주의를 지지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일본에서는 물리적 의미를 상실하고 자유로운 기호의 장난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sup>94</sup>

국가에 따라 양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1930년대에 유선형이 모든 지역에서 신화가 됐다는 점이다. 같은 시기 조선에 불어닥친 유선형 열풍도 다르지 않았다. 유선형을 처음 조선에 알린 것은 신문에 보도된 서양의 최신 기기와 발명품들의 사진이었다. 산업과 디자인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유선형 운송수단들이 곧바로 소개되었고 서양에서 유행하는 패션이나 미의 기준까지도 유선형의 이름으로 보급되었다. 유선형의 빠른 수용은 선진 문물을 공유하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현대화를 이루고 미래를 향해 진보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1935년에는 조선에서도 ‘유선형시대’라는 용어가 범람하고 “현대인의 우상은 유선형신(神)”<sup>95</sup>이라 할 만큼 유선형이 광적인 유행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유선형 열풍은 역설적으로 과학 연구나 산업 생산에서 뒤떨어진 조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새로운 발명품 대신 조선의 자연이나 전통적 곡선에서 유선형을 찾기도 했다. 이러한 시도는 유선형의 본질을 왜곡했으나 한편으로는 유선형에 대한 광범위한 상상력과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유선형은 형태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속함, 세련됨, 유행, 최신식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사용됐다. 나아가 사람의 내면이나 사회의 시스템, 예술의 형식에 이르기까지 추상적인 개념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미지 기호에 점점 더 새로운 의미가 결합해 ‘모던’의 신화가 되어간 것이다.

유선형의 적용 대상이 자유롭게 변모했지만, 유선형은 무엇보다 근대 시각문화

---

94 原克, 앞의 책(2017), pp.362-364.

95 夕影, 앞의 글(1935. 2. 2).



의 공통된 표상이었다. 조선에서는 유선형이 신문 잡지의 사진, 삽화, 만화, 광고, 영화 등 시각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되었다. 일상에 침투한 유선형은 탈것, 신체, 일용품, 패션, 자연 등 주로 사물의 시각적 외형에 간단히 결부되었다. 1930년대 조선은 자본주의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었고, 상품화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시각적인 것이 소비자를 유혹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유선형은 무엇이든 매끈한 표면으로 균일하게 만들어 보는 이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제품뿐 아니라 사람의 몸도 유선형이라야 상품성이 있었다. 근대의 시각문화에서 모던한 이미지들은 모두 유선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1930년대 조선에서 유선형은 이미지 기호로 수용되고 자유롭게 변모했다. 유선형 이미지가 추상적 개념에 다다른 것은 역으로 추상적 개념마저도 이미지화하고 시각화하려는 근대적 욕망을 드러낸다. 유선형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가치관을 포괄하는 시각문화의 표상으로서 근대라는 시대의 문화적 동의어였다.

#### 주제어 Keywords

유선형 streamline, 모더니즘 modernism, 근대성 modernity, 근대 디자인 modern design, 모던 양식 modern style, 시각문화 visual culture, 1930년대 1930s

투고일 2023년 3월 31일 | 심사일 2023년 4월 18일 |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30일

## 신문·잡지

- 『京城日報 Gyeongseong Ilbo, The Keijo Nippo』  
 『東亞日報 Donga Ilbo』  
 『每日申報 Maeil Shinbo』  
 『釜山日報 Pusan Ilbo』  
 『三千里 Samcheolly』  
 『詩와 小說 Poetry and Novel』  
 『朝鮮民報 Chosun Minbo』  
 『朝鮮日報 Chosun Ilbo』  
 『朝鮮中央日報 Chosunjoongang Ilbo』

## 논저

- 김지혜 Kim, Jihye, 「'미스 조선', 근대기 미인대회와 미인 이미지 "Miss Joseon", Beauty Contests and the Image of Beautiful Women in the Modern Mass Media」, 『미술사논단 Art History Forum』38, 2014. 6, 211-236.
- 김태환 Kim, Tae Hwan, 「자동차에 나타난 유선형 기계미 연구: 질베르 시몽동의 '세계 내 삽입' 개념을 중심으로 A study on Machine Beauty of Streamlined Car: Focused on Gilbert Simondon's Concept of 'Insertion in the World」,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M.A. thesis, Hongik University, 2014.
- 벤야민, 발터 Benjamin, Walter, 조형준 옮김 Cho, Hyungiun trans., 『아케이드 프로젝트 Das Passagen-Werk』 1, 2, 서울: 새물결 Seoul: Saemulgyeol, 2013.
- 소래섭 So, Rae-seob, 「정지용의 시 「유선애상」 다시 읽기 Rereading of 'Yusunasang' by Jung, Ji-yong」, 『한국현대문학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The Learned Societ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2006. 7, pp.161-180.
- 신명직 Shin, Myoung-Jik, 「안석영 만문만화 연구 A Study on Ahn Seok-Young's Manmoon-Cartoon」,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h.D. diss., Yonsei University, 2001.
- 신영전 Shin, Young-Jeon, 「식민지 조선에서 우생운동의 전개와 성격: 1930년대 『우생(優生)』을 중심으로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Eugenic Movement in the Colonial Period: Represented in the Bulletin, Woosaeng」, 『醫史學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15:2(29), 2006. 12, pp.133-155.
- 오창섭 Oh, Changsup, 「일제강점기 전후 신체와 미(美)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의 출현 The Emergence of a New Sensibility about the Body and Beauty During the Colonial Rule by Japanese」,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17:3, 2011. 9, pp.447-455.
- 이수정 Lee, Soo-Jong, 「'유선애상', 실패의 체험담: 자전거로 비유된 '조선 근대시' On "Yusunae-

- sang”: A Tale of a Failed Korean Modern Poet, 『한국현대문학연구 *The Journal of Modern Korean Literature*』47, 2015. 12, pp.289-231.
- 채승진 Chae, Sungzin, 「신고전주의와 유선형 Neo-classicism and the Streamline」,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 TECH*』2:1, 1995, pp.145-152.
- 한민주 Han, Min-ju, 『해부대 위의 여자들: 근대 여성과 과학문화사 *Women on a Dissecting Table: Culture History of Modern Women and Science*』,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Seoul: Sogang University Press, 2017.
- 헤스켓, 존 Haskett, John, 정무환 옮김 Jung, Muhwan trans., 『산업디자인의 역사 *Industrial Design*』, 서울: 시공사, Seoul: Sigongsa, 2004.
- 生井英考 Ikui, Eiko, 「美女と野獣: 流線形デザインとアメリカニズムのレトリク Beauty and the Beast: Streamline Design and the Rhetoric of Americanism」, 『武蔵野美術 *Musashino Art*』111, 1999, pp.22-27.
- 原克 Hara, Katsumi, 『流線形の考古学 *Archeology of the Streamline*』, 講談社学術文庫, 東京: 講談社 Tokyo: Kodansha, 2017.
- 原克 Hara, Katsumi, 『流線形のシンδροム *The Streamline Syndrome*』, 東京: 紀伊国屋書店 Tokyo: Kinokuniya, 2008.
- Barthes, Roland, *Mythologies*, ed. and trans. by Annette Lavers, New York: Hill and Wang, 1972.
- Bush, Donald J., *The Streamed Decade*, New York: George Braziller, 1975.
- Cogdell, Christina, *Eugenic Design: Streamlining America in the 1930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4.
- Hanks, David A. and Hoy, Anne, *American Streamlined Design: The World of Tomorrow*, Paris: Flammarion, 2005.
- Heller, Steven. & Fili, Louise, *Streamline: American Art Deco Graphic Design*, San Francisco: Chronicle Books, 1995.
- Longford, James, *Norman Bel Geggés: From Horizons to the Futurama*, London: Southgate Books, 2019.
- Meikle, Jeffrey L., *Twentieth Century Limited Industrial Design in America 1925-1939*, New York: Harry N. Abrams, Inc., 1990.

# Streamline, the Image of Modern Representation of Modern Visual Culture

ABSTRACT

Park, Eunyoung

This research deals with “streamline” as an integral symbol of modern visual culture and “modern” image. Originally, streamline was a form designed to acquire the maximum speed by minimizing the external resistance that is applied to a moving object. The streamline design, which has begun to be used mostly for transportation, exudes a sense of agility with its simple and smooth yet functionally efficient form. Streamline elevated the aesthetic sense of machinery and speed.

The concept of modern “streamline” which began to spread in the 1930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mmediately attained global recognition. The streamline design was also introduced to Korea shortly after and became popula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he 1930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hanges in perspective and aesthetic consciousness in Korea by tracking the concept of streamlined in Korean newspapers and magazines in the 1930s.

Streamline was recognized as a concise, functional, and up-to-date form and is regarded as an innovative image that represented progress. However, streamline is not a term limited to form; it has also been used more broadly as a concept representing speed, style, trend and newness, that is “the modern”. Streamline became a culturally significant concept during its times. Greatly influencing on a generation it emerged as a type of social and cultural sign that represented the value system prevalent in as well as the changes occurring in the society.

Despite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colonial Korea, streamlined models were quickly introduced and became popular, reflecting the desire for modernization and social change toward capitalism. The trend of streamline in the 1930s can be seen as a visual culture phenomenon that occurred in close relations with politics, economy, institutions, military and others. Streamline has become an image and symbol of “modern” as a keyword of the times and it has become a modern myth as a cultural code.